

불패의 리더 임진왜란 해전사로 읽는 이순신 승리의 기술

I. 들어가며

1. 임진왜란과 선조의 리더십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외교정책은 사대교린(事大交隣), 즉 큰 나라인 중국을 섬기고 이웃의 작은 나라 여진, 일본과는 외교적으로 화친하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여진, 일본에 대해서는 무력행사를 때론 교역을 통해 회유정책을 유지해왔다.

조선은 여진과 일본을 야만인이라고 하여 멸시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왜(倭)라고 부르며 시종일관 내려다보는 자세였다.

그런데 16세기 들어 국제정세는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차츰 세력을 잃고 만주에서 일어난 후금(후 청나라)이 강성해지기 시작했으며, 일본은 오랜 내전 끝에 통일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

약 100년에 걸친 일본의 치열한 내전을 종식시킨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그는 관동의 실력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협약을 맺고 1590년 일본통일을 완수한 다음 곧바로 조선 침략을 계획했다. 비록 통일은 했지만 수많은 제후와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였으므로, 대외적인 전쟁을 일으켜 그 힘을 밖으로 배출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틈에 자신의 세력을 다지려는 의도였다. 이에 영토확장으로 대외무역 이익을 올리려는 제후들의 속셈이 덧붙여져 조선 침략 계획은 속속 진행되었다.

1591년 8월 도요토미는 '명나라 정벌'을 선포했다. 사실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은 그의 오랜 꿈이었지만, '명나라 정벌'은 구실이고 실제 정벌 대상은 조선이었다. 1592년 임진년 4월, 15만에 달하는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다. 1년 전, 통신사 황윤길 일행을 통해 명을 정벌하겠으니 길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는데도 조선의 벼슬아치들은 일본의 속셈은 눈치 채지 못하고 동인, 서인으로 갈려 당쟁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국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일본은 유럽에서 신무기 조종을 들여와 대량생산, 전쟁준비를 마쳤다. 부산진을 단숨에 함락시킨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왔다. 한 달이 채 못되어 수도 한양이, 두 달만에 평양이 함락되었다. 그 전에 왕 선조는 조정 대신들을 이끌고 수도를 버리고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다. 왕이 한양을 벗어나자마자 도성 안의 노비들은 노비문서를 보관하는 장예원과 형조에 불을 질렀다. 궁궐은 온통 불길에 휩싸였다. 적이 도착하기도 전에 수도는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중의 마음은 떠나 있었다. 군사 모집을 위해 함경도로 파견된 임해군, 순화군 두 왕자는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 고전하다가 적의 포로가 되었고, 피난길에 오른 왕 일행은 민중의 차가운 시선과 욕지거리에 맞닥뜨려야 했다. 백성과 나라를 돌보지 않고 당파싸움에만 골몰한 당연한 결과였다. 관군은 이름뿐,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기가 일쑤였다. 적군이 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꼬리를 감추는 수령들은 지휘자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람 앞의 등불격인 나라를 다시 일으킨 주인공은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이었다. 관군 모집에는 응하지 않던 민중들이 스스로 들고일어난 것이다. 의병은 대개 같은 지방에 사

는 양반, 농민, 노비 등이 모여 조직했으며, 의병장은 그 지방에서 명망이 높은 유생이나 전직관리가 맡았다.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의병은 산발적인 게릴라전을 펴서 일본군의 후방을 위협하기도 하고 치열한 전면전을 벌이기도 했다. 간선도로를 따라 급히 밀고 올라오느라고 몇몇 주요지점에만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던 일본군에게 이들 의병의 존재는 매우 위협적이었다. 한편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승전고를 울리기 시작했다. 이순신이 만든 새 전함 거북선은 신출귀몰,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고 보급로를 차단했다.

그 무렵 명나라 원군이 도착했다. 그러나 벽제관 전투에서 패한 명군은 평양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일본에 강화를 요청했다. 1593년 4월 회담이 진행되었다. 일본군은 회담 진행 도중 진주성을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의병장 김천일 이하 수많은 의병들이 전사했다.

회담은 4년 만에 깨어졌다. 1597년 왜군 14만이 공격을 재개했다. 이를 정유재란이라 한다. 이때 이순신은 왕의 출전 명령을 어긴 죄로 옥에 갇혀 있었고, 그를 대신해서 원군이 수군통제사 자리에 있었다.

일본군의 대함대를 맞아 원군은 수륙합동작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총사령관 권율은 이를 듣지 않고 바다로 나가 싸우라고 명령, 곤장을 쳐서 내보냈다. 하는 수 없이 출전한 원군은 싸우다 전사하고 함대는 대파되었다. 일본군은 경상, 전라 일대를 점령했다. 이 무렵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사망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일본군은 철수를 시작했다. 철수하는 적의 뒤를 공격하다가 이순신 또한 노량에서 전사했다. 7년에 걸친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몹시 컸고, 그 여파는 국제정세를 일변시켰다.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정권이 들어서고, 명나라는 국력을 소모한 결과 만주에서 일어난 청나라에게 밀려나게끔 되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선조의 리더십이다. 어렵고 힘들 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조는 잘못된 리더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적으로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야사에 의하면 선조는 이 당시 명나라에 몸을 의탁하는 망명의 길을 택하려 했다는 것이다. 리더의 무능함으로 국토와 백성의 삶이 초토화되어도 백성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내 한 몸 편해 보려는 선조의 리더십 부재를 알 수 있다.

2. 죄인이 된 이순신

임진왜란 중에 진정한 리더는 누구였는가. 나라가 멸망의 나락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일편단심 충성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이 개선장군이 되지 못하고 죄인으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겨우 죽음만 면하고¹⁾ 백의종군하게 되었던가?

제7차 어전회의(1597년 1월 27일)에서 선조는 화가 나서 "이제 이순신이 가토의 머리를 들고 오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했다. 이는 반드시 이순신을 죽이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순신의 죄목은, 첫째 가토를 잡지 못 했고, 둘째 부산의 왜군진지 방화를 자신의 공인 양 허위보고 했고, 셋째 조종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었다.

서울로 압송되기 전 이순신은 후임 원군에게 군량미 9,914섬, 화약 4,000구, 총통 300자루 등을 인계했다. 이들 물자는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숨결이 거처가지 않은 것 없이 온갖 고통을 참아가며 부하들과 함께 일구어낸

1) 1597년 3월 2일, 이순신에 대한 제1차 고문이 끝나자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서 영의정 유성룡은 남인(南人)으로서 자기와 같은 퇴계의 문인이고,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정탁(鄭琢)을 시켜서 선조에게 이순신을 살려 달라는 신구차(伸救劄)를 상신하게 부탁했다.

것이였다. 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보았던 것들이기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가슴에는 피가 멈추었을 것이다.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진정시켰을까?

이순신은 마침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옥에 갇혀 모진 심문을 받았다. 생명이 경각을 다투는 때에도 시종일관 담담하게, 그것도 결코 남을 끌어들이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다. 죽게 되면 죽는 것이다(死生有命 死當死矣)'라는 담담한 심정으로 고난을 이겨냈다.

영의정 유성룡은 「정비록」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정의 의논이 둘로 나누어져 각각 다투게 되었고 이순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합세해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행록 II>에서 이순신의 투옥과 관련, 화은 신령이 쓴 「재조변방지」에 실린 글을 소개하면 '당시에 서인은 원균의 편을 들고, 동인은 이순신의 편을 들어 서로 공격하기에 다른 국사는 내던져졌으니 그러고도 나라가 안 망한 게 다행이다'라고 했다.

1차 심문으로 초죽음이 된 이순신의 구명 상소문을 올린 지중추부사 정탁은 옛날 자신이 위관이 되어 죄수를 심문한 경험으로 보아서 한번 조사를 받은 죄수는 초죽음이 되어 다시 한번 문조를 받으면 목숨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 세운 그의 공을 참작하고, 또한 이순신 같은 인물은 다시 구하기 어려우므로 전쟁 중에 진충보국의 기회를 주어 임금의 은혜에 보답토록 하자는 내용의 구명 상소문을 선조께 올려 투옥된 지 28일만에 석방되었다.²⁾

충무공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싸움터를 떠나 서울로 압송되어 28일 간이나 모진 고문을 당하고 끝내는 아무런 직위도 없이 백의종군하게 되는 장면은 우리 역사를 읽을 때 가장 분통터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역사에 대한 혐오감마저 들어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끼는데 이는 필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의 군주 선조와 조정 중신들의 병법에 관한 무지와 그 무지가 낳게 되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 그리고 백성의 고초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함으로써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II. 불패의 리더 이순신 전략과 마인드

불멸의 이순신 용병술. 이순신이 적을 맞았던 바닷길을 일일이 답사한 불패의 리더 이순신 작가, 윤영수는 이순신의 전투의 준비와 전개과정, 치열했던 전쟁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재현했다. 또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순신이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어떤 필승의 전략과 용병술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이룬 리더의 마인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옥포해전

2) '영웅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새삼스럽게 생각난다. 국문에 심신이 지쳤지만 그는 불평 한 마디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세상은 너무도 혐오스러웠을 것이다. 이순신은 무죄 판결이 나서 석방된 것이 아니라 죄명을 지니고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백의종군은 직위도 직책도 없이 싸움터로 나간 것이다. 1587년 선조 20년에 녹전도 둔전관으로 근무하다 병사 이일의 무고로 파직되어 백의 종군한 뒤 53세의 나이에 두 번째 겪는 고초였다. 감옥에서 풀려나와 남해안 권율 도원수의 진영으로 가는 도중 어머니의 운명 소식을 전해들은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1) 동쪽으로 쏜 화살은 동쪽으로 간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20여 일, 15만 일본군 선봉은 파죽지세로 북진에 북진을 거듭했다. 기어이 한양에 입성한 일본군 병사들의 발은 온통 피멍과 물집이 잡히고 부르터 있었다. 한양 함락을 목표로 부산에서 진격을 개시한 일본군은 전투보다는 북진을 위해 강행군을 했던 셈이었다. 그만큼 조선 육군의 저항은 미미했던 것이다. 물론 동래 부사 송상현, 부산진 첨사 정발, 충주 배수진의 신립 장군 등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다 영웅적으로 전사했지만, 일본군의 조총에 맞서기란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다.

전란 소식을 듣고서도 이순신은 20여 일이나 지나도록 출전하지 않은 채 여수의 전라좌수영에 머물고 있었다. 몇 번에 걸쳐 경상우수사 원균이 참전을 요청했지만 이순신은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① 신중한 선택, 승산이 있다

아무리 전란이지만 일선 장수가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는 없었고 이순신은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를 바탕으로 일본군의 전력을 탐색했다. 적의 전력은 어떤지, 무기는 어떤 것이며 주로 어떤 전술을 쓰는지 관찰하고 분석했다. 신중하게 기다리던 이순신은 마침내 출전을 결행했다. 조정에서 적군과 싸우라는 공식 문서가 도착한 다음이었다.

1592년 5월 3일, 여수를 떠난 이순신은 당시 경상우수사이던 원균과 합류했다. 이순신은 판옥선 24척의 함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원균은 4척만을 가까스로 수습하고 있었다.

지금의 거제시 옥포만에 적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이순신은 작전회의를 열었다. 마침 전라좌수군과 경상우수군의 연합 함대에는 당시 옥포 만호이던 이운룡이 있었다. 이순신은 그에게서 옥포의 지형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옥포만은 넓고도 깊어서 넓은 바다 쪽에서 쳐들어간다면 적에게 쉽게 노출될 것이 뻔했다. 일본군 몰래 기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당시 판옥선의 속도를 봐도 기습전은 무리였다. 판옥선은 평소에는 돛과 노를 함께 이용하지만 전투시에는 돛을 접고 오로지 노의 힘만으로 운행해야 하기에 속도가 느렸다. 돛을 접는 것은 적의 화공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순신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적의 무기 체계를 파악했다. 당시 일본군은 최첨단 무기인 조총을 확보하고 있었다. 수군도 조총을 이용했다. 주력 무기는 조총과 활,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일본도가 전부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조선 수군의 판옥선에는 총통이 있었다. 조선 수군이 적의 조총 피해를 입지 않고 적선을 격파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포격전이었다. 일본군 조총의 유효 사거리에 비해 조선 총통의 사거리는 훨씬 멀었다. 조선 총통의 경우 500보 넘게 발사체를 쏠 수 있지만 일본군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100보 내외, 따라서 먼 거리 포격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다고 이순신은 판단했다. 또한 조총은 인명 살상용이지만 조선 수군의 총통은 목재로 된 일본군 전선을 파괴할 만한 위력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후 이순신은 원거리 포격전이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순신이 자신의 작전을 설명했다. 그러나 원균 등 용맹한 다른 장수들은 원거리 포격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란 적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목을 베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적선에 아군의 전선을 접근시키고 적이 후퇴할 경우 상륙하여 끝까지 추격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순신은 이런 의견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접근전은 허락하지 않는다. 적이 도망치더라도 결코 상륙하지 마라!" "적의 수급(머리)을 취할 생각하지 마라. 적의 배를 격파하는 자의 전공을 높이 살 것이니라." 원균 등 일부 장수들은 불만스러웠지만

이순신의 전라좌수군이 주력군이었으니 그의 작전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② 진격, 두려워하지 마라!

마침내 이순신의 조선 연합 함대는 옥포 앞바다로 진격했다. 그때까지 조선 수군이 오는 것을 모르고 방심하던 일본의 도도 다카도라 군은 전선의 뱃머리를 육지 쪽으로 대놓은 채 노략질에 한창이었다. 드디어 이순신 함대가 옥포만 입구에 다다랐다. 적선은 30척! 포구 곳곳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적선을 바라보는 이순신은 만감이 교차했다. 이순신은 함대를 포격 사거리까지 진격시켰다. 그러고는 일자진을 펼치게 했다. 원군의 판옥선까지 모두 28척이 일렬 횡대로 늘어섰다. 아직은 조선 수군의 판옥선 앞머리가 적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전투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조선 수군의 총통 대부분은 배의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총통이 적선을 향하게 하려면 배를 돌려야 했다. 옥포해전 1592년 5월 3일 지금의 거제시 옥포만에서 벌어진 이순신의 첫 해전. 28척의 함대를 이끌고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전 함대 우현으로!"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조선 판옥선이 90도로 회전했다. 이제 배의 측면에 있는 총통이 적선을 향했다. 뒤늦게 이순신 함대를 본 일본군은 부랴부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조선 수군을 향해 진격해 오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뱃전에 늘어서 조총 사격을 가해왔다. 순간 벼락 같은 총소리가 옥포 바다를 가득 메웠다. 그 소리에 조선 수군들이 몸을 움츠렸다. 조선 육군도 그러했다. 조총 총탄이 날아오기도 전에 소리에 놀라 전열이 무너졌던 것이다. 난생처음 들어보는 엄청난 총소리에 대부분의 육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쳤던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적의 조총은 우리 배에 미치지 못한다. 천자총통을 준비하라!"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화포장과 포수들이 천자총통에³⁾ 대장군전을 장전했다.

③ 쓰러지는 적, 승리를 확인하라

"방포하라!" 화포장이 떨리는 손으로 심지에 불을 붙였다. 심지가 타들어가자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둔중한 충격이 뱃전에 전해졌다. 무게 200킬로그램에 길이가 3미터 가까운 대장군전이 천자총통에서 발사되었다. 대장군전은 까마득히 멀어져가서 적선을 넘어 옥포 포구에 떨어졌다. "넘어갔습니다." 포수가 즉각 보고했다. "화약을 줄여라! 포신을 낮춘 후 방포하라!" 중완구(中碗口). 넓은 입구에 단석이나 비격진천뢰를 넣어 발사했다. 다음 순간 일제

3) 천자총통(天字銃筒). 대장군전과 조란탄을 발사하는 대형 총통이다. 천자총통은 조선 수군이 보유한 총통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다. 천자총통은 자체 무게만도 200킬로그램이 넘는 대형 총통이다. 조선 수군은 이 총통을 동차에 실어 이동시켰다. 총통에 들어가는 대장군전은 앞부분이 쇠로 된 대형 화살로 화살 가운데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그 길이만도 270센티미터가 넘었다. 이것을 천자총통에 넣어 쏘 경우 900보가량 날아간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900보라면 약 1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다. 3미터에 가까운 대형 화살이 1킬로미터를 날아간다면 그 충격이 어떨겠는가?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총통에 대장군전을 장전해 발사해본 결과 석축에 50센티미터 가까운 구멍이 났다. 대장군전은 날아가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로 적의 성벽이나 배에 치명상을 입힌다. 얇은 삼나무 판자로 만든 일본군 전선은 대장군전을 맞으면 그대로 갑판부터 배 밑바닥까지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솟아올라 침몰하게 되는 것이다. 총통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다. 쇠로 만든 커다란 통으로 아래쪽이 막혀 있는 원통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막혀 있는 맨 아래쪽에 적당량의 화약을 넣고 그 화약에 닿을 수 있도록 종으로 끈 심지를 만들어 총통에 나 있는 심지 구멍으로 밀어 넣는다. 화약을 넣은 다음 바로 대장군전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격목이라는 나무토막을 끼운다. 이는 화약이 폭발할 때 그 폭발력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격목 대신 흙을 다져 넣는 경우도 있다. 입자 고운 흙을 다져 넣어 폭발력을 유지시키려는 것인데 이를 토격이라 한다. 화약을 넣고 격목을 박은 다음 총통 입구에 대장군전을 넣는다. 이제 화살 앞머리가 적진을 향한다. 그런 다음 화포장은 심지에 불을 붙인다. 물론 심지 구멍은 총통의 몸체에 만들어져 있다. 심지에 붙은 불이 타들어가 화약이 폭발하면서 격목과 대장군전을 함께 날려 보내는 것이다.

히 조선 판옥선에서 총통이 발사되었다. 대장군전, 차대장군전, 그리고 단석들이 어지러이 날았다. 조선군의 포격을 받은 일본군은 혼비백산했다. 대장군전이 떨어진 일본군 전선에는 그대로 구멍이 뚫렸고 커다란 단석⁴⁾ 역시 구멍을 뚫으며 그 틈으로 바닷물이 치솟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총과 활로 대적했으나 사거리 밖이었다. 일순 숨이 멎는 듯한 공포가 그들 사이를 휩쓸고 지나갔다.

조선 판옥선 28척은 한꺼번에 200여 발의 포격을 가했다. 조선 총통의 방포 소리는 일본군 조총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조선 수군이 쏜 발사체들이 넓은 화망을 형성한 채 끊임없이 날아들었다. 30여 척의 일본 전선이 힘없이 격파되어갔다. 일본군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군사들에게 적의 실체를 보여주고 그들이 조선군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판옥선의 격군들이 노를 저어 이미 전의를 상실한 일본군 가까스로 접근했다. 드디어 적이 화살 사정거리까지 들어왔다.

뱃전에 늘어선 조선 수군들이 팽팽하게 시위를 당겼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화살을 과녁을 향해 날렸던 조선 수군이였다. 이순신의 활쏘기 훈련은 엄격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 적을 향해 날리기는 처음이었다. 시위를 당긴 팔들이 가늘게 떨렸다.

이순신의 명령과 함께 사수들이 시위를 놓았다. 날아간 화살은 수많은 일본군을 쓰러뜨렸다. 화살에 맞은 일본군은 뱃전에 쓰러지거나 바다로 고꾸라졌다. 조선 수군들 자신도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믿기 어려웠다. 적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그들이 날린 화살에 맞아, 총통에 맞아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군사들 사이에 일었다. 조선 수군들은 쉬지 않고 화살을 날렸다.

이순신은 안도했다. 이제 적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적선은 겨우 5척만이 해안을 끼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옥포 앞바다는 불타는 적선과 물에 빠진 일본군 시체로 가득했다. 조선 수군은 목청껏 함성을 울렸다. 그들이 이긴 것이다. 누구도 믿지 못했던 승전, 야차 같다는 일본군을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완벽하게 격파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순신과 조선 수군의 첫 전투 옥포해전은 승전으로 끝이 났다.

2) 이겨본 자만이 이긴다

① 이겨놓고 싸워라

마침내 출전을 결심한 이순신, 그는 임진왜란이 단 한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전선은 넓고도 길게 형성되었다. 무엇보다 이미 일본군 주력군이 육지로 진격하며 주요 거점을 장악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또한 수많은 일본군 후발대가 대마도를 떠나 속속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하루 이틀, 한두 번의 전투로 끝날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다.

서기 645년,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고구려 장수 양만춘은 안시성에서 그들을 맞았다. 안시성 싸움에서 양만춘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30만 당나라 대군의 공세를 막아냈고 결국 당 태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퇴각하고 말았다. 안시성 한 곳의 싸움이 전쟁을 판가름해버린 경우다.

그러나 임진왜란은 달랐다. 특히 해전은 육지의 전투와 또 달랐다. 전장은 드넓게 펼쳐진 바다, 언제 어디서 어떤 적과 마주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한 번의 해전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안 이순신, 그는 긴 싸움을 준비했다. 그래서 첫 전투가 무엇보다

4) 단석이란 둥근 돌덩이로, 이는 입구가 큰 '완구'라는 총통에 넣어 발사하는 무기였다. 일본군으로서는 모든 것이 처음 보는 신무기들이었다.

중요했다. 앞으로 치를 술한 전투를 위해서라도 첫 싸움, 서전은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첫 전투 승리를 위해 그가 준비한 전술, 그것은 원거리 포격전이었다. 그리고 이순신은 조총보다 총통(포)이 훨씬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나폴레옹이 짧은 기간에 정복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포병을 잘 운용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이전 시절은 기마병이 주력군이었으나 나폴레옹은 적의 기마병을 포격으로 간단히 제압하여 정복전쟁의 영웅이 되었던 것이다.

원거리 포격전을 기획한 이순신, 적과 아군의 무기 체계를 연구한 다음 전술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적중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 것이다. 조선 수군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첫 해전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순신은 일단 안도했다. 조선 수군들도 적에 대한 공포감을 없앴다. 앞으로도 이길 수 있으리라. 이겨본 자만이 이길 수 있으므로.

지는 것은 습관이다. 이기는 것 역시 습관이다. 이순신이 첫 해전 옥포에서 가장 주력했던 것, 그것은 처음 전투에 나서는 조선 수군에게 승리의 기쁨, 승전의 기억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판에 이겨라. 그 뒤에는 승승장구가 기다린다. 만에 하나 첫판에 이기지 못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라. 서전의 승리, 그 기억이 자신을 바꾸어놓을 것이다.

2. 합포해전

1)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려라

① 소규모 적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초여름 햇살이 아직도 따가운 오후, 영등포 바닷가가 갑자기 부산해졌다. 막 전투를 끝낸 조선 수군들이 배를 대기 시작했다. 한켠에서는 포로를 끌고 오고 한켠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승리의 무용담을 나누었다. 자신이 쏜 총통에 맞아 일본 배가 부서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던가? 그동안 수없이 화살을 쏘고 또 쏘았지만 움직이는 적병을 죽이는 것을 4,000여 조선 수군은 오늘 처음 경험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영등포에 오른 군사들은 승전의 기쁨에 들뜬 한편, 항해와 숨막히는 전투로 멀미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전라좌수영 장수들은 일사불란하게 이순신의 작전을 따랐다.

어쩌면 경상우수사 원균은 이순신이 옥포 포구까지 상륙해 적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터뜨렸을지 모른다.⁵⁾ 영등포 바다에서 그렇게 첫 전투를 정리하고 있을 때 급보가 전해졌다. 적선 5척이 거제 앞바다를 지나 지금의 진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첩보였다. 고작 적선 5척! 이순신은 잠시 고민했다. 5척의 적선을 치기 위해 군사를 출동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군사를 움직인다면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고심하던 이순신은 전군 출동을 결정했다. 휘하의 몇몇 장수들은 이견을 달았다. 적선은 고작 5척, 닭을 잡기 위해 도끼를 들고 뭇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었다. 그것도 이제 막 힘겨운 전투를 끝낸 군사들이 쉬려는 참이 아니냐며 출전 결정이 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자신의 뜻을 번복하지 않았다.

5) 이순신이 지장(智將)이라면 원균은 용장(勇將)이었다. 경상우수사 원균은 이미 북방의 여진족을 막아내는 데 술한 공을 세운 전력이 있었다. 비록 수군은 처음 맡았지만 그에게 전투란 적진에 쳐들어가 초전에 박살내는 것을 의미했다. 원거리에서 포나 쏘고 적선을 깨뜨리고 물에 빠진 적병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그의 생리나 전투 철학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적이 육지로 도망가면 육지까지 올라가 적장의 목을 베서 긴 장대에 꽂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장수였던 것이다. 이순신과 원균의 이러한 시각 차이는 나중에 매우 큰 차이로 드러난다.

"나도 알고 있소. 적선 5척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규모요. 그러나 지금 5척을 격파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그 5척도 50척만큼 힘에 겨울 것이요. 지금 군사들의 사기는 최고조에 올라 있소. 휴식과 승전의 달콤함도 좋지만 이 여세를 몰아 나선다면 어렵지 않게 적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요.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라 했소. 군사들의 사기가 충만해 있는 지금, 적을 해치웁시다."

결국 이순신의 출전 명령이 떨어졌고 막 휴식을 취하려던 조선 수군은 즉각 전투 태세를 갖췄다. 병사들이라고 어찌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그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고작 5척을 잡기 위해 전 함대가 움직여야 하는가? 게다가 어려운 전투를 치르고 난 지금. 그러나 이순신의 명령은 단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선 5척이 보였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② 조선 판옥선의 위력

일본군의 배는 속력 면에서 조선군의 판옥선을 능가했다. 좀체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향해하면서 쏘는 총통은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그리고 28척의 전 함대가 한꺼번에 총통을 발사할 수도 없었다. 앞선 판옥선 몇 척에서 쏘는 총통으로는 도주하는 적을 명중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조선군은 총통을 쏘며 기세를 올렸지만 일본군의 도주 역시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선과의 거리는 점차 좁혀졌다. 그 비밀은 노에 있었다.

일본군 배는 노가 조선 판옥선보다 많지만 노 하나에 격군(노꾼) 1명이 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판옥선은 최고 4명까지 저울 수 있는 커다란 노였다. 노의 개수도 16개 정도였다. 따라서 판옥선 한 척에 타는 노꾼만도 64명이었다. 노 하나에 두 사람이 2교대로 저울 때 32명은 노를 젓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했다. 그러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노 하나에 4명씩 64명 전원이 젓기도 했던 것이다.

③ 작은 성취의 함정을 경계하라

남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하더라도 멈추지 마라. 작은 성과나 성공에 만족할 때 그곳이 바로 깊은 함정이 된다. 성공하고 싶다면, 진정으로 이기고 싶다면 여세를 몰아가라!

3. 적진포해전

1) 적은 언제나 뒤에서 접근한다

하루 동안 옥포와 함포해전을 치른 이순신 함대는 당시 창원 땅 남포에서 밤을 보냈다. 길고 긴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새벽, 척후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진해 고리량에 적선이 있다는 것이었다. 주먹밥으로 군사들의 아침을 해결한 후 이순신은 즉각 출동을 명령했다. 병사들은 어제의 승리감에 들떠 있었다. 서전을 치른 군사들은 자신감과 함께 전투 요령도 생겼다. 군사와 격군들의 사기도 높다. 비록 두 번의 해전이었지만 완벽한 승리를 거둔 조선 수군, 그동안 연마했던 개인 전술과 함대 전술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으리라! 이순신은 함대를 몰고 한달음에 고리량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에 적은 없었다.

2) 언제나 첫싸움처럼 하라

이순신은 즉각 휘하 장수들을 모았다. 장수들은 영문 몰라하며 이순신 대장선으로 건너왔다. 함대가 이동할 때는 전투선인 판옥선 뒤에 소선들이 따라 붙었다. 이들은 식량이나 식수 등 보급물자를 싣거나 정찰, 연락 등의 임무에 투입되었다. 장수들은 대장선의 초요기를

보고 모두 소선을 타고 건너왔다. 그들도 적이 보이지 않아 어리둥절했다.

① 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순신은 자신의 경솔함을 털어놓았다. 적도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깜빡 잊었던 것이다. 조선 수군이 정찰선을 띄우면 적도 띄울 것이다. 조선 수군이 육지의 높은 산에 관측병을 투입했다면 그들도 그러할 것이다. 일본군은 어제 하루에만 30척이 넘는 전선을 잃었다. 당연히 전황을 보고하였을 테고 전군에 비상령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순신은 즉시 함대를 분산, 인근 해역을 철저히 수색하도록 하였다. 수색을 하다 보니 항로도 길어졌다. 지금의 마산에서 고성 방면으로 이어지는 바다, 남해안에는 수많은 섬과 포구가 있다. 조선 수군은 섬과 포구를 천천히 수색해나갔다. 언제 적의 기습 공격이 있을지 몰라 모든 판옥선의 돛을 내린 채 항진했다. 오로지 격군들의 힘으로 항진하며 살살이 수색했다. 적들이 아군의 존재를 안다면 이는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술책인지도 모른다. 적이 아군의 항로 양안에 병력을 매복해놓고 기다린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순신은 척후선을 띄웠다. 장수들과 군사들은 다시 바다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어선으로 가장하여 척후를 나갔던 배가 돌아왔다. 척후의 보고를 받은 이순신은 안도했다. 적들은 적진포에 상륙하여 민가에 불을 지르며 약탈과 살육에 급급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마침내 이순신은 전투명령을 내린다. 적진포는 포구가 좁으니 전 함대가 일시에 쳐들어갈 수 없다. 모든 함대는 장사진을⁶⁾ 펼쳐라. 적진포해전 철저한 수색 끝에 고성군 당동만의 적선을 발견, 대승을 거두었다.

② 조선 총통, 조란탄의 위력

이순신 함대는 차례대로 포구의 오른쪽으로 들어와 적선에 포격을 했다. 앞선 판옥선이 포격을 하고 지나가면 다음 배가, 또 그 다음 배가 포격을 했다. 그리고 맨 선두는 다시 장사진의 후미에 붙어 차례로 또 한 번 포격을 했다. 포구에 정박한 일본 전선을 향해 엄청난 포격이 가해졌다.

무방비 상태의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포격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대장군전과 차대장군전, 그리고 둥근 돌로 된 단석들이 날아가 여지없이 일본 전선을 파괴했다. 조선 판옥선에 비해 선체가 얇은 일본 배는 단석과 장군전을 맞기만 하면 갑판이 부서져 나가거나 돛대가 부러졌다. 이는 조선 수군에게 치명타를 입히지는 못했으나 포격을 뜸하게 하는 효과는 있었다. 한동안 요란한 조총 소리와 조선 수군의 엄청난 포격 소리가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켰다. 조선 수군은 언덕 위의 적을 향해 불화살을 날렸다. 그러나 녹음 짙은 숲 속에 숨은 일본군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기에 방포를 중지시키고 조란탄을⁷⁾ 준비하여 공격하였다.

6) 장사진(長蛇陣)이란 글자 그대로 긴 뱀처럼 판옥선을 일렬로 정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차례로 지나가면서 목격물을 포격하고 다시 돌아 나오고 그 다음 배가 포격을 가하는 방법이었다. 그 사이 포격을 마친 배는 다시 장전하여 앞 배의 꼬리에 붙는 진법, 이것은 적선을 향해 끊임없이 반복 포격을 가할 수 있는 진법이었다.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전 함대가 일렬 중대로 늘어섰다. 28척의 판옥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적진포로 진격해 들어갔다. 옥포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선은 뱃머리를 육지 쪽으로 대놓은 채 완전 방심 상태였다.

7) 지자총통(地字銃筒)은 천자총통 다음으로 큰 화기이며, 조란탄이나 장군전을 발사한다. 조란탄은 총통 안에 골프공만한 쇠구슬을 최대 400여 개까지 넣어 발사하는 가공할 무기였다.천자총통의 경우 조란탄을 100여 개 넣었다. 그 위에 다시 흙을 넣고 다졌다. 아직도 총통에는 공간이 남아 있다. 다진 흙 위에 또 조란탄을 넣고 그 위를 흙으로 덮었다. 마치 쓰레기를 매립할 때 일정량의 쓰레기를 넣고 그 위를 흙으로 한 벌 덮고 다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서너 차례 반복하면 총통 입구까지 조란탄이 가득 찬다. 조란탄 사이를 흙으로 채우는 것 역시 폭발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가능하면 조란탄 사이에도 틈이 없도

화포장들이 심지에 일제히 불을 붙였다. 이순신 함대에서 발사된 조란탄은 숲 속에 숨어 있는 적진을 유린했다. 일본군들이 부지기수로 쓰러져갔다.

일본군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포구에는 13척의 배가 불타거나 침몰되었고 육지에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소 2,000여 명의 일본군이 조선 수군에 의해 붕괴되었다. 살아남은 일본군도 돌아갈 배를 모두 잃고 말았다. 다행히 이순신이 우려하던 매복도 없었고 일본군이 조선 수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치른 해전이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두 번의 연승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신중하게 적진포해전을 치렀고 승전했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등 뒤의 적을 견제하며 올린 세 번째 승전고였다.

2) 그래도 신중하라

① 배후를 살피라

출동을 나간 조선 수군들, 그들의 전투 외의 일상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수군들과 격군들의 차이는 어땠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하루 두 끼, 주먹밥으로 때웠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거나 보급은 충분치 않고 수군과 격군 사이에는 차별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노를 젓던 격군들 중에는 노비 출신이 적지 않았다. 수군은 대부분 양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단잠에서 깨어난 그들 앞에 또다시 명령이 떨어졌다. 이순신은 서둘러 군사들을 먹이고 출동 명령을 내렸다. 적이 있다는 첩보였다. 사기충천한 이들을 이끌고 가면 역시 승전을 거둘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막상 그곳에 가니 적이 없었다. 이순신은 자신의 경솔함을 돌이켜본다. 어찌하여 배후를 걱정하지 않고 적의 매복을 염려하지 않은 채 함부로 함대를 움직였던가? 적이 있다는 첩보만 믿고 덜컥 대군을 출동시키는 장수가 어떻게 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이순신은 철저한 수색을 명령했고 수색 끝에 애초의 첩보와는 달리 적진포에서 적을 발견했던 것이다.

② 아킬레스건 - 패장과 명장의 차이

어떤 장군은 적의 배후를 차지하고 어떤 장군은 배후를 허용하는가. 첫째는 전체 전황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적의 전력과 병력, 적이 이용할 수 있는 전략 전술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냉정히 살피지 않았을 경우, 배후를 허용하고 만다. 또 하나는 지휘관이 작은 승리에 도취해 냉정을 잃는 순간이다. 적진포해전이 있던 그날 아침, 이순신조차 이런 함정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곧 냉정을 되찾았고 함대 운용의 기본으로 돌아갔다. 척후를 내세우고 정찰선을 운용하며 내가 지난 자리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폈다. 오랜 전란에서 그를 승전으로 이끈 것은 탁월한 리더십과 더불어 이러한 신중함인지 모른다.

4. 사천해전

1) 긴 활이 짧은 활을 이긴다

옥포, 함포, 적진포해전을 치른 이순신에게 비보가 전해졌다. 조정에서 한양을 버리고 북으로 피난을 갔다는 소식이었다. 그것은 일본군이 한양을 함락했다는 뜻이었다. 이순신과 장

록 하는 것이다. 천자총통 하나에 조란탄 약 400여 발, 지자총통이라도 300여 발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총통이 10문이라면 조란탄, 즉 쇠로 만든 새알만한 공이 동시에 삼사천 개가 날아가는 것이다. 주먹만한 쇠공이 400~500여 미터를 날아와 사람에 맞는다면? 아무리 두터운 갑옷과 투구를 입고 있더라도 치명적일 것이다. 게다가 크기가 작아 날아오는 것이 보이지도 않으니 피할 수도 없다. 더구나 곡사포 형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엄폐물 뒤에 숨은 적에게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처럼 조란탄은 인마 살상용으로는 가공할 위력이 있다.

수들과 조선 수군은 크게 낙심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200년 조선 왕조가 문을 닫고야 마는 것인가.

그러나 정작 당황한 것은 일본이었다. 봉건영주들의 성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에 익숙한 일본군들, 그들은 조선의 도성인 한양만 차지하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조선 왕과 조정은 피난을 해버렸고, 도성을 빼앗겼는데도 조선군은 산발적으로 저항했다. 더구나 각지에서 의병이라는 무리들이 일어나 일본군의 배후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의병이란 작자들은 무인도 아니었다. 지방의 선비들이 자신이 집에서 부리던 노비와 소작인들을 모아서 몇 백 명, 혹은 몇 천 명 단위로 저항했던 것이다.

2) 적의 교두보를 격파하라

일본군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전쟁은 무사 계급이 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벌어지면 난리가 터지면 농사꾼들은 죽은 채하고 농사만 짓는 그들의 문화에서 오합지졸들이 무명 띠 두르고 죽창을 들고 일어난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순신은 적진포해전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전라도 도사로부터 급보를 받았다. 군왕의 몽진(蒙塵)! 이순신은 일단 여수의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귀환했다. 세 번의 해전으로 수군들도 지쳤지만 조정의 피난이라는 사태에 어찌 대처할 것인지 시간이 필요했다. 여수로 돌아온 이순신은 피난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이순신은 장계와 함께 식량도 보냈다. 아직 서해 뱃길은 조선군의 수중에 있어 평양의 피난 조정에 연락선을 띄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순신의 장계를 받은 조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개전 이후 처음 받는 승전보였던 것이다.⁸⁾

이순신의 역할로 적군은 전라도 바다와 전라도 육지까지 적은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라지역은 더 중요해졌다. 잠시 숨을 고른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억기에게 하루빨리 전투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⁹⁾ 그러던 차에 경상도에 남아 있던 원군으로부터 급보가 전해졌다. 일본군이 경남 사천까지 진출하여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¹⁰⁾

이순신은 즉각 출동을 명령했다. 전라우수사 이억기 부대가 합류한다면 좋겠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대신 이순신은 믿는 바가 있었다. 그것은 세계 해전사에 가장 극적인 신무기, 바로 거북선이었다.

3) 만만치 않은 적을 만나다

1592년 6월 1일, 원군과 합류한 이순신은 곧장 사천만으로 함대를 이동시켰다. 함대가 진격하는 동안 적의 척후선 한 척을 만나 곧바로 격파해버렸다. 그러나 살아남은 적의 척후병들은 육지를 통해 달아났다. 이제 사천 선진 포구의 적들은 이순신 함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8) 전란 초기, 조선 조정은 사태 파악에 실패했다.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다. 몇몇 장수와 군사들이 오로지 우국충정만으로 일본군에 맞섰으나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조정은 건국 이래 최초로 몽진이라는 현실을 감내해야 했다. 도성을 버리고 떠나는 임금과 벼슬아치들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는 컸다. 그들은 임금의 행차를 막다가 마침내는 궁궐에 불을 질렀다. 피난길 곳곳에서도 임금과 대신들은 수모를 당했다. 난생처음 굶주리기까지 했다. 피난 행렬에서 이탈하는 호위병들도 늘어났다. 이제 종묘사직은 백척간두, 서울을 차지한 왜적이 언제 임진강을 건너 북상해 올지 모르는 상황,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올라온 이순신의 승전보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였다. 선조는 즉각 이순신에게 가선대부라는 벼슬까지 내렸다.

9) 해남의 우수영에 있는 이억기 부대는 자기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오지 않는 적을 기다리기보다는 좌수영과 연합해 적을 일선에서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억기 함대는 즉각 출동하지 못했다. 함대가 자신의 관할지역을 벗어나는 데는 절차가 필요했다. 임금의 명령 없이 함부로 군대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10) 사천이라면 경상 바다의 가장 서쪽, 여수에서 너댓 시간 거리에 있는 곳, 만약 이곳에 일본군이 진지를 구축한다면 여수 또한 위태롭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은 더욱 손쉽게 전라도 바다로 진출할 것이었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옥포나 다른 해전처럼 기습전은 이미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순신은 전면전을 결정했다. 사천 선진 포구는 내륙으로 깊숙이 만이 형성된 곳에 있었다. 따라서 양 옆으로 높은 언덕이 있어 선진 포구는 그 자체가 천혜의 요새였다. 그곳에 일본군은 전선 20여 척을 포구 깊숙이 정박해두었다. 그리고는 잡아온 조선 백성들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 이순신 함대가 접근할 무렵, 일본군은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의 병력을 선진 포구로 들어가는 입구의 산언덕에 배치했다. 직접적인 해전 대신 육지에서 조선 수군을 맞겠다는 전략이었다.

4) 신무기 거북선, 불을 뿜다

그때까지 이순신은 거북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거북선은 적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기 중이었다. 적이 거북선의 외양을 보고 두려워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 만약 적이 거북선을 본다면 결코 넓은 바다로 쫓아 나오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거북선을 감춘 이순신 함대가 물러나는데도 적은 유인당하지 않았다. 적을 눈앞에 두고도 썰물이라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순신 함대, 이순신은 기다리기로 했다. 밀려나간 물은 언젠가는 밀려들어 올 것이다. 한여름 해가 금오산 너머로 넘어갈 즈음 드디어 밀물이 되었다. 조선 판옥선이 선진 포구까지 진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었다.

5) 돌격선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거북선.

곧바로 대장선에서 거북 귀(龜)가 선명한 기가 올랐다. 뒤쳐져 있던 거북선이 조선 함대를 해치고 앞으로 나왔다. 노을을 배경으로 불쑥 나타난 거북선, 뱃머리는 흉측한 용의 형상이었고 배 위는 아예 밀폐되어 그 모양이 배인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조선 함대를 향해 진격해 오던 일본군들은 놀랐다. 흉측한 괴물 하나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 함대 한가운데까지 해치고 들어오다니! 거북선은 스스로 일본 함대에 완전히 포위된 형국이 되었다.

이순신은 전란 중에도 다양한 진법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거북선 양측 옆구리에서 일제히 포문이 열리더니 포신이 불쑥불쑥 나왔다. 그리고는 앞머리에서 총통이 한 발 발사되는 것을 신호로 거북선 양 옆구리에서 일제히 총통이 발사되었다. 곧 선진 포구 앞바다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문도 모른 채 거북선을 구경만 하던 일본 전선 중 서너 척이 순식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제서야 일본군들은 거북선을 향해 조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조총탄은 거북선의 선체를 뚫지 못했다.¹¹⁾

이순신은 진해 앞바다 해전인 당항포해전, 울포해전, 학익진을 펼쳤던 한산대첩, 안골포해전, 부산해전, 웅천해전, 견내량 봉쇄작전 7번의 승리를 거둔다. 또한 2차 당항포 및 진해해전인 칠천량해전, 어란진해전을 통해 승리를 거두며, 벽파진 1차 해전, 불과 13척으로 130여척을 상대했던 명량대첩에서 승리하였다. 마지막 절이도해전인 1차 예교해전, 예교해전, 노량해전의 승리를 보여준다. 이 책은 이순신의 해전 중에서 원균의 칠천량 패배를 포함하여 17전의 승전한 해전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량해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 노량해전

11) 이순신은 거북선을 개량하여 우선 배의 위에 판자를 덮어 거북의 등 껍질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등 위에는 열십자로 길을 내, 거북선의 구조를 잘 아는 조선 수군만이 다닐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길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는 검선처럼 적이 기어올라오지 못하게 날카로운 못을 촘촘히 박았다. 싸울 때는 밤송이 같은 갑판 위에 띠풀을 덮었다. 겉에서 보아서는 전혀 그 아래 날카로운 못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1) 바람 앞에 맨몸으로 설 때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된다

1598년 음력 11월, 순천 앞바다에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려는 일본군과 그들을 끝내 살려 보내지 않겠다는 이순신의 조선 함대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순신에게도 사자(使者)를 보냈다. 살아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순신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순천 왜성에 갇혀 있던 일본군 연락선 두 척이 명나라 군 진영을 통해 빠져나갔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회유에 넘어간 진린이 일본군의 연락선이 통과하는 것을 묵인해주고 말았던 것이다. 이순신은 아연 긴장했다. 일본군 연락선의 임무는 뻔했다. 그것은 구원군 요청일 것이다. 이제 사천 고성 등지에서 철수 준비를 하던 일본군들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2) 적을 살려 보내지 않겠다

이순신은 오히려 협공을 받게 된 상황이었다. 사천 등지에 모여 있는 적선은 최소 200여 척, 순천 왜성에는 1만 5,000여 명의 일본군이 있었다. 반면 조선 함대는 관옥선 83척에 명나라 전선 십수 척이 고작이었다. 만약 앞뒤로 협공을 당한다면 조선 수군 역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순신은 뒤에서 접근하는 적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1598년 11월 18일, 늦은 오후, 이순신은 전군에 명령을 내렸다. 즉각 순천 앞바다 봉쇄를 풀고 전 함대를 노랑으로 진격하도록 했다. 사천의 적이 순천 앞바다로 진격해 올 수 있는 길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남해 섬 먼 바다를 돌아 미조 상주 지금의 남해군 남면과 서면을 거쳐 오는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장 짧은 길인 노랑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었다. 보통의 경우 적은 가장 짧은 해로인 노랑을 거쳐 올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신중했다. 함대의 일부를 미조 앞바다로 보내 혹시라도 아군의 허를 찌르기 위해 먼 길로 우회하는 적이 있는지 살피도록 했다. 그리고는 주력 함대는 노랑으로 진격시켰다. 경남 하동과 남해가 마주 보는 좁은 뱃길, 남해대교가 놓여 있는 그곳이다. 많은 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좁은 물길이 유리했던 것이다.¹²⁾

조선 수군들도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되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백전노장의 그들이었지만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더했다. 적 역시 결사의 자세로 전투에 임할 것이다. 패하고 돌아가는 그들, 본국에서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이순신의 목을 가져간다면 그는 전쟁 영웅이 될 것이다. 비록 조선 명나라 정벌은 실패했지만 그들의 가장 큰 결림돌이었던 이순신의 목을 가져간다면 그는 일약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그들은 더 적극적일 것이다. 조선 수군의 목이라는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3) 치열한 마지막 전투

이순신 역시 만감이 교차했다. 지난 7년, 숱한 목숨을 저 바다에 묻지 않았던가? 그 길고도 참혹했던 전란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다. 마지막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전란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전쟁 중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조선 수군을

12) 열 여드렛 날 달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이순신은 함대를 섬 그늘로 바짝 붙여 향진시켰다. 노랑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다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 1만 6,000여 명, 이때 명나라 군은 이순신 함대와 한참 떨어져 있었다. 앞선 순천 왜성 전투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명나라 수군은 전투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구원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순신 함대의 짐이었다.

모두 잃는 아픔을 당했다. 비록 자신은 백의종군의 몸으로 묶여 있었지만 지난해 여름, 조선 수군의 칠천량 참패 소식에 그는 아득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기적처럼 수군을 재건하여 이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노량해전 이순신이 전사한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였다.¹³⁾

방어태를¹⁴⁾ 물리고, 이순신은 섬 그늘에서 기다렸다. 이순신과 조선 수군들은 적을 기다렸다. 얼마나 많은 적이 몰려오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드디어 일본군 선단의 앞머리가 노량의 좁은 물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일본군들은 사방에다 대포 조총 사격을 가하면서 다가왔다. 조선 수군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매복이 있을지 몰라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로 보였다. 밤하늘을 찢는 듯한 조총 소리가 높았다. 이순신은 긴장하는 수군들을 진정시켰다. 드디어 총통 사거리까지 적의 함대가 들어왔다. 그러나 아직은 적 함대의 선두, 적의 허리를 잘라야 한다. 이순신은 기다렸다. 드디어 거대한 함대 무리가 노량의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장수들이 이순신의 방포 명령을 크게 복창했다. 조선 수군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화포장은 화약 심지에 불을 붙였다.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미 장전하고 있던 수많은 발사체가 밤하늘을 날았다. 대장군전과 장군전, 그리고 단석이 날아올랐다. 천지를 진동하는 방포 소리가 밤바다를 뒤덮었다. 이순신은 전 함대를 적의 허리를 향해 진격시켰다. 조선 판옥선의 포격을 받은 적함들은 허둥대기 시작했다. 조선수군의 포격은 여전히 위력적이었다.

적선에 명중한 장군전과 단석들은 곧바로 적선에 타격을 입혔다. 일본군도 조총과 활로 대응사격을 해 왔다. 그러나 조선 수군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이순신은 곧장 적군의 허리를 자르기 위해 근접전을¹⁵⁾ 시도했다. 적의 함대는 선두와 후미로 분산되었다. 얼핏 보기에 400여 척이나 되 보이는 적선, 노량의 좁은 바다는 곧 치열한 접전장으로 변했다. 곳곳에서 조선 판옥선이 적선을 들이받는 소리가 났다. 우지끈 돛대가 부러지고 일본 전선의 뱃머리가 부서졌다. 일본군의 조총 사격에 조선 수군들도 쓰러져 갔다. 이순신도 직접 활을 잡았다. 시위를 놓을 때마다 적이 쓰러졌다. 그러나 물리쳐도 물리쳐도 적은 줄어들지 않았다. 조선 판옥선으로 등선(登船)을 시도하는 일본군도 있었다. 판옥선 갑판에서는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선 수군과 일본군은 한 덩어리가 되어 흘러가면서 싸웠다.

4) 깊은 슬픔이 승전의 기쁨을 덮다

자정쯤 시작된 전투는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멀리 동녘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¹⁶⁾ 전세가 기울자 일본군은 퇴로를 찾으려 했다. 그들은 관음포로 몰려 들어 갔다. 관

13) 개인적으로도 전쟁은 그에게 시련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를 잃었고 사랑하는 막내아들을 잃었다. 지난 7년, 아니 무관이 되어 북방으로 떠돌던 저 30대 초반부터 20여 년,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이란 없었다. 아랫목에 앉아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했던 적이 있거나 했던가? 이기리라, 이겨야 하리라! 단 하나의 적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바다를 가득 메운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리라 결심하였다.

14) ‘방어태’는 군사들의 잠담을 막기 위해 입에 물리는 나뭇가지였다.

15) 전에 없던 전술이었다. 거북선이 있을 때는 거북선을 적진 깊숙이 돌격시켰지만 지금은 판옥선밖에 없는 상황, 근접전은 포격전에 비해 아군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전법이었다. 그러나 노량의 좁은 바다에서 적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는 근접전밖에 없다는 것을 이순신은 알고 있었다. 이순신이 바라는 것은 왜적의 전멸, 결국 근접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16) 명나라 도독 진린은 전투 초반,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나 그도 장수였다. 웅맹한 조선 수군들의 전투를 보고 그도 마침내 출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진린은 곧 일본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빠졌다. 이순신은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고 진린의 전선을 구해냈다.

음포는 남해 섬의 깊은 만이었다. 얼핏 보면 이 바다와 저 바다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길이 막힌 곳이었다. 이순신은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조선 수군들은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마침내 이 전란을 우리 손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조선 수군은 이순신 대장선 뒤를 따라 관음포로 돌격해 들어갔다. 마지막 힘을 내고 있었다. 관음포에 갇힌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활로를 찾고 있었다. 일부 적선이 조선 수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고 있었다. 그 때 일본군 조총이 이순신을 노리고 있었다. 혼전 중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 일본군 조총에서 불을 뿜었고 이순신은 가슴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고 쓰러졌다. 즉각 조카가 달려오고 부장들이 달려왔다. 조선 수군들을 방패로 이순신을 둘러쌌다. 조카 이완이 이순신을 부축했다. 이순신은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의 죽음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 수군은 전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정오가 되기 전, 노량 앞바다에 포성이 잦아들었다. 대신 조선 수군의 함성 소리와 감격에 겨운 눈물이 가득했다. 일본군은 수백 척의 피해를 남기고 퇴각했으며 순천 왜성에 숨어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도 남해 먼 바다를 통해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승전의 기쁨보다 장군을 잃은 슬픔이 더 컸다. 우리 손으로 전란을 끝냈다는 자랑보다 아버지 같은 이순신을 잃은 슬픔으로 조선 수군들의 통곡은 오래도록 그칠 줄 몰랐다. 임진왜란을 통틀어 가장 길고 치열했던 노량해전, 조선 수군은 400여척의 적선을 격침시키는 승전을 경험했고, 이순신의 전사로 노량해전은 끝났으며 마침내 길고 길었던 임진왜란도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¹⁷⁾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길을 충실히 걸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성된다. 오늘날 이순신이 우리에게 다시 울림을 주는 것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그 용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세상의 수많은 의혹의 시선과 의심의 논리를 그는 간단하게 제압해버렸다.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에 맨몸으로 섰던 그 용기로 그는 스스로 인생을 완성했던 것이다.

Ⅲ. 나오며

이순신의 승리는 역사보다 신화에 가깝다. 강대한 적을 맞아 신출귀몰한 전략과 전술로 수십 번의 해전을 이겨낸 인물, 그래서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었으며 민족의 영원한 귀감이 된 인물이다. 516년 전, 임진왜란을 맞아 온 나라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마치 하늘이 내린 인물처럼 우리 곁에 다가와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첫 해전 옥포에서부터 마지막 해전 노량 전투까지, 그는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다. 전승이었다. 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 그의 전략전술은 무엇이었을까? 전투는 전투력이라는 물리적인 요건과 함께 그에 임하는 장수와 군사들의 정신과 사기가 핵심이다.

17) 그렇게 이순신은 전사했다. 조선국(朝鮮國)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제1선에서 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해군 최고 사령관이 전장에서 죽어간 것이다. 이순신이 죽고 그날로 임진왜란은 끝이 났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술한 논란이 있었다. 첫 번째 근거는 이순신이 전사 당시 갑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투가 한창인 때, 적과 바로 마주한 백전노장 이순신이 왜 갑옷을 벗었을까?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이순신의 자살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신은 오늘 죽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당시의 최고 권력자 선조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미 선조로부터 두 번이나 백의종군 명령을 받았던 이순신, 과연 선조는 이순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전쟁 막바지,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전후 권력이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전후 복구 문제를 거론하는 대신조차 없었다. 선조와 왕세자 광해군의 관계는 어찌 될 것인가, 어느 봉당이 득세할 것인가가 더 큰 관심사였는지 모른다. 이런 분위기의 핵심에 이순신이 있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순신은 선조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의 주목의 대상이었다. 풍전등화의 나라를 7년 내 단 한 번의 패전도 없이 남해와 서해 바다를 굳게 지킨 덕에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순신의 해전을 23전 23승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이순신의 해전 중에서 원균의 칠천량 패배를 포함하여 17전의 해전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이순신에게 배우는 승리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겨본 자만이 이긴다는 점이다. 성공과 승리의 경험은 무엇보다 값진 자산이다. 패배감에 물든 군대는, 이기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군대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둘째, 여세를 몰아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작은 성취에 만족하는 순간 위기는 찾아온다.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는 강력한 추진력, 그것만이 완전한 승리를 보장한다. 셋째, 그 누구보다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라. 자신의 선택을 믿어라. 스스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라. 주먹은 결국 자신이 쥐는 것, 자신을 신뢰할 때 적을 공격할 수 있다. 넷째, 전면전을 피하지 마라. 결국 승부는 전면전에서 결정난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면전, 전면전을 회피해서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다. 다섯째, 제1선에서 지켜라. 지키는 것도 이기는 것이다. 지켜야 한다면 제1선에서 지켜라. 적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보면서 지켜라. 한번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 마지막으로 적은 더 빨리 강해진다. 적은 항상 나를 주시한다. 적은 나를 이기기 위해 무슨 수단이든 동원할 것이다. 나보다 빨리 강해지는 적, 그 적을 이기려면 한걸음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길 위에서 죽기를 원한다. 운동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쓰러지겠노라 장담한다. 그것은 그라운드에서 심장마비로 죽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가장 훌륭한 선수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일 것이다. 자신의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일, 그리고 마침내 가치를 남기고 죽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완성일 것이다.

신은 공평하여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삶을 부여했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몫이다. 지금 나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의 완성을 향해 가라. 아무도 대신 갈 수 없는 좁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뚝뚝 걸어가라. 내 앞에 남아 있는 생, 그것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그것을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도 바람은 분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나에게 불어오는 고난과 고통의 바람, 그 앞에 맨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 참고도서 】

1. 불패의 리더 이순신, 그는 어떻게 이겼을까 - 임진왜란 해전사로 읽는 이순신 승리의 기술, 윤영수, 웅진지식하우스, 2005.04.25
2. 황소가 헬기를 끌고가는 리더십, 이석훈, 북랜드, 2000.12.20
3. 한국사이야기, 조선과 일본의 7년전쟁, 이이화, 한길사, 2001.05.30
4. 이야기 조선왕조사, 이근호, 청아출판사, 2005.07.08
5. 이순신을 알면 일본을 이긴다, 노병천 지음, 21세기 군사연구소, 2005.04.28